

OPEC, 원유 수요전망 상향조정

2010년 1.6% 늘어 하루 8575만배럴 ... 한국 경제성장 영향도

OPEC(석유수출국기구)이 원유 수요 전망치를 또 다시 상향 조정했다.

OPEC은 2010년 과 2011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1.6%, 1.4%로 종전 전망치보다 각각 0.3%p, 0.2%p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.

OPEC는 11월11일 월간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 전망으로 2010년 세계 원유 수요가 전년대비 1.6% 증가해 하루 8578만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.

또 2011년 세계 원유 수요는 하루 8695만배럴로 1.4%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.

이로써 OPEC은 10월에 이어 2달 연속으로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.

OPEC은 보고서에서 “당초 2010년 하반기 경제성장을 과소평가했으나 3/4분기 들어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”며 “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어느 정도 커지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특히, 한국이나 독일 등 산업화된 국가들의 경제가 다양한 경기부양책의 도움을 받아 예상 이상의 견조한 흐름을 보인 결과 원유 수요가 예상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.

그러나 앞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것이며 뜻밖의 격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1/12>